



경남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개장

사천시는 지난 10월 27일 편백 향이 가득한 초록빛 힐링 공간인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개장식을 열고 일반에 공개했다.

사천시 실안길 242-45 일원에 위치한 39.4ha 규모의 자연휴양림은 수령 40년 이상의 편백림 군락지가 형성돼 삼림욕을 하기에 적합하다.

자연휴양림에는 울창한 숲과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숙박동(22실), 캠핑이 가능한 야영 데크(15개소), 샤워 시설을 갖춘 야영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또 탁족장, 어린이 물놀이장, 숲 놀이터, 숲 탐방 시설(1.2km)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설치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20ha에 이르는 편백숲에 가면 수만 그루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 기회를 선사한다. 숲속 탐방로는 자연 친화적인 야자 매트와 흙길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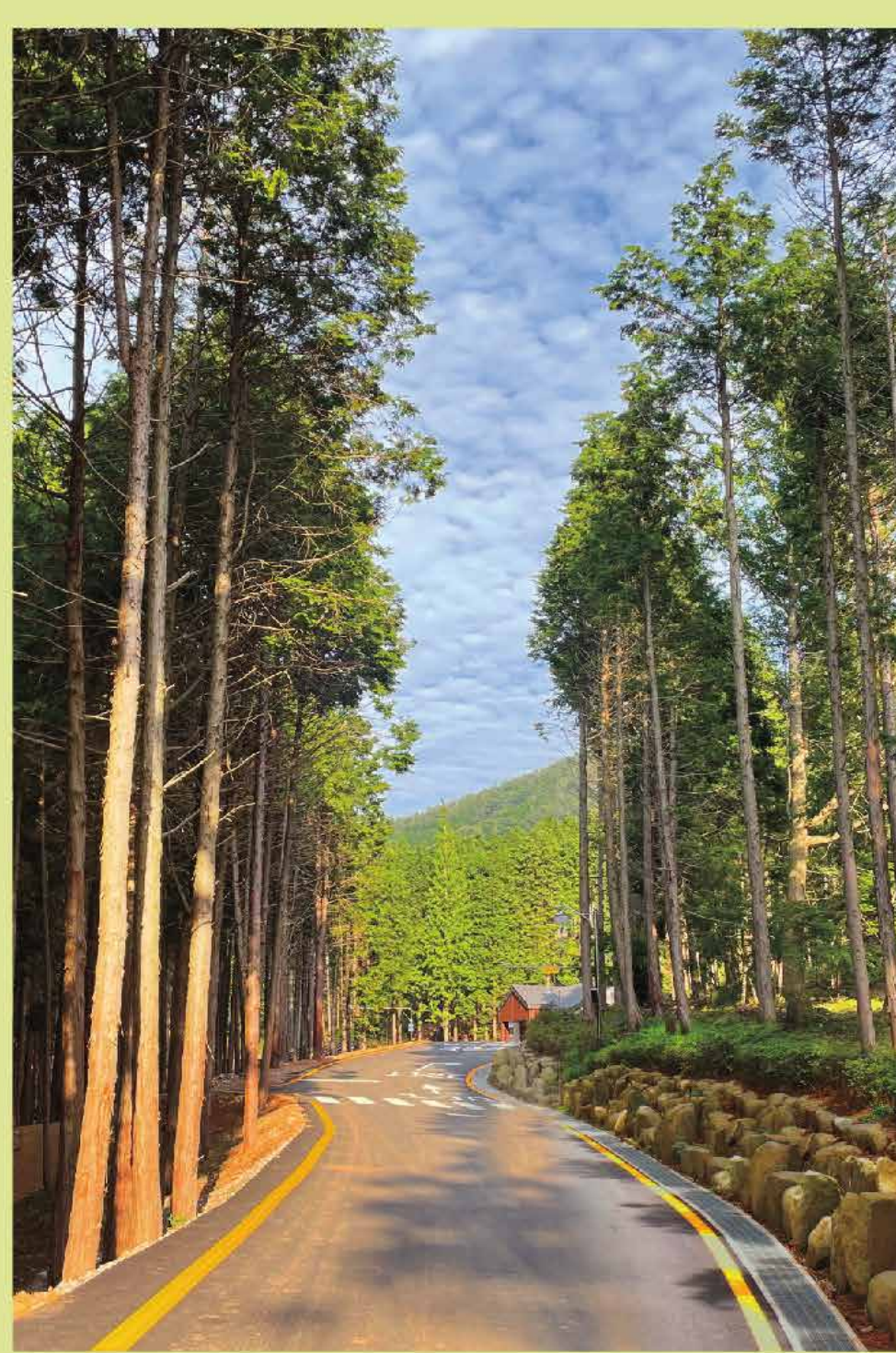
숙박동은 2~4인용 11실, 6~8인용 5실, 10~12인용 6실 등 모두 22실로 조성했는데, 통합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에서 예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객실의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사천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지원 대상자 등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 데크 이용료의 20%를 할인해 준다. 숲사랑지도원, 한국숲사랑청년단 단원,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등에도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연휴양림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덤이다.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각산(해발 408m)은 도심지와 연결된 조그마한 산으로 산벚나무, 진달래 등 예쁜 꽃으로 물든 풍경이 수채화가 연상될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다. 수령 40~50년생의 편백 향이 가득한 편백숲은 각산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사천 8경 중 제1경으로,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에 선정될 만큼 전국에서 유명한 창선-삼천포대교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각산 정상부 케이블카와 사천의 명물 중 하나인 실안낙조 또한 절경이 뛰어나 매우 인기가 높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양림, 편백 향이 가득한 초록빛 힐링 휴양림"이라며, "사천 바다케이블카, 아쿠아리움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떠나자 즐거움 가득한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